

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 중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2.24.(화) KBS, 「“눈물 날 정도로 힘들다”..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명세서 봤더니», 매일경제 「“월 112만원으로 생활, 눈물난다”..필리핀 이모 “돌봄 아닌 청소·빨래 가사 도우미”», 서울신문 「필리핀 가사관리사 “뼈격”.. 전국확대 내년 하반기로 연기」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
 - 초반에는 짧은 시간 근무해 급여가 적은 경우가 있었으나,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현재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로 월 급여 206만원(숙소비 등 공제 후에도 약 월 140만원) 수준임
- 현재 가사관리사는 육아업무와 육아 관련 가사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가사업무는 가볍고 부수적인 수준에서 가능함
 - 이용자가 사전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를 할 경우 조정하고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하고 있음
- 중기중앙회 설문조사는 사업 초기인 10월 초 불만사항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 해당 사항들은 대부분 개선되었음
- 아울러 본 사업의 추진시기 및 방식은 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서기관	김정탁 (044-202-7145)